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협력과 중국의 FTA 전략

2011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아태지역의 새로운 지역협력 동향과 중국의 FTA 전략
2. 일 시 : 2011. 1. 27 (목) 16:00~18:00
3. 발표자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赵晋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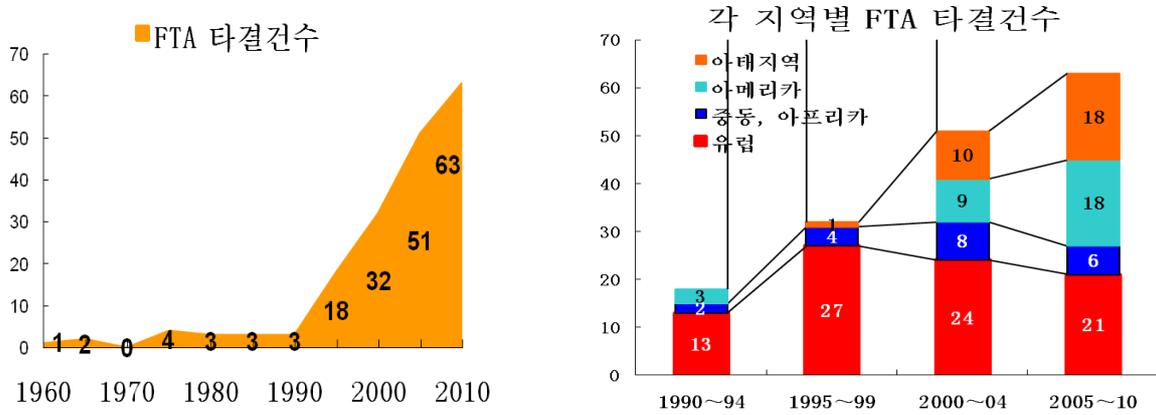
1. 아태지역의 새로운 FTA 동향

□ 지역 간 FTA 협정의 주요특징

- 자유무역지대의 빠른 증가 (2010년 6월 기준 187개 달성)
-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FTA 상대국과의 무역 비중이 상승 (APEC내 51% 달성)
- 다자간 FTA(예컨대 10+6, FTAAP, TPP 등)의 발전이 주목 받고 있음.
- 전통적인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과 기타 분야로 확산 (WTO서비스 무역의 양허 범위를 초월한 내용을 포함)

- 전 세계 지역경제의 통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FTA 타결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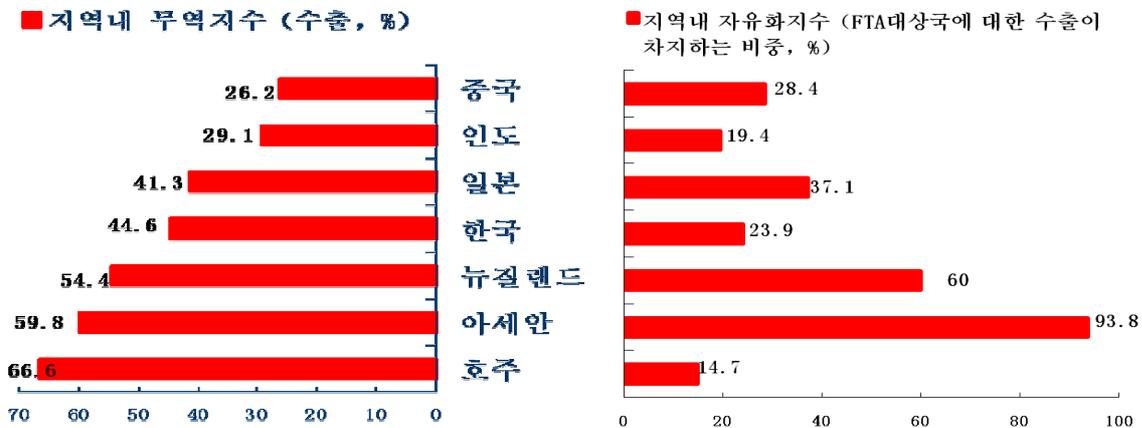
<그림1> 전 세계 FTA 타결건수와 지역별 타결 건수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발전: 10+6

- 시장과 제도 측면에서의 성과는 <그림2>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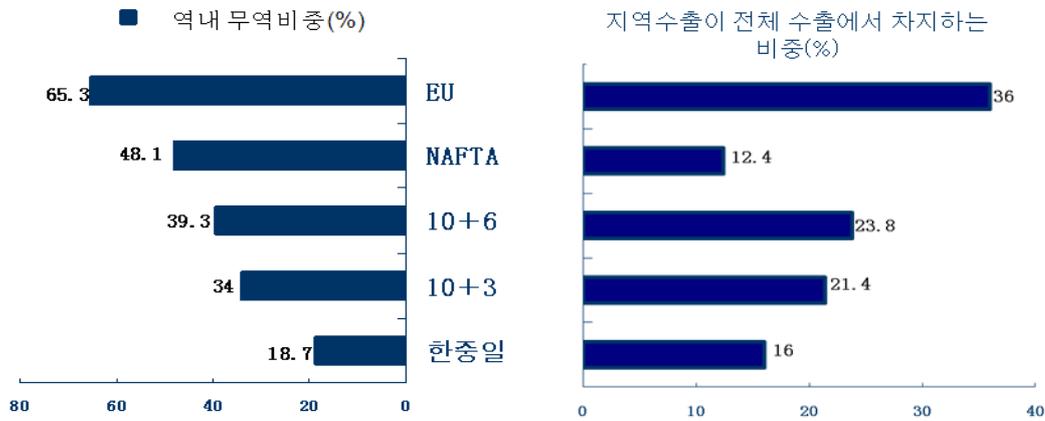
<그림2> 10+6 지역 내 무역지수와 자유화 지수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회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 비해 뒤쳐져있음.

- 지역 내 무역비중과 자유화 수준은 EU와 NAFTA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그림3> 주요 경제블록 별 지역 내 무역 비중



□ 아태지역의 다자간 FTA는 전 세계 GDP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표1> 다자간 FTA의 전 세계 대비 비중 (GDP와 인구)

	전 세계 총량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3	10+6	FTAAP	TPP
인구	67.3억 명	31.3	49.2	40.4	7.4
GDP	57조8천만 달러	21.4	25.6	55.1	27.7
회원국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APEC의 21개 회원국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 일본정부의 EPA 정책 동향

- “아세아전략”을 “신 성장전략”의 중요한 전략내용으로 제정
- 2010 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회의에서 “아태지역의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힘.
- TPP 가입 가능성 검토, 올해 내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EU와의 EPA 공동연구 시작
- 한중일 FTA의 산학관 공동연구 추진에 동의

2. 중국 FTA 발전 현황

□ 중국 FTA의 발전 현황

- 중국은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등 10여개 국가 및 지역과 FTA협정(CEPA 혹은 ECPA)을 체결하였음.

□ 2010년 중국 FTA는 아래와 같은 발전을 이루었음:

- 중국-페루 FTA 발효, 2010년 3월 1일
- 중국-코스타리카 FTA협정 체결, 2010년 4월 8일
- 중국-한국 FTA 산학관 공동연구 완성, 2010년 5월 28일
- 중국-스위스 FTA 타당성 공동연구 완성, 2010년 8월 13일
- 한중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 시작, 2010년 5월 6일

- 2010년 12월 6~7일, 상무부가 제1차 전국 FTA공작회의를 개최하였음.

- 2010년에 들어서 중국은 계속하여 중국-GCC국가, 중국-호주, 중국-노르웨이 FTA협상 및 중국-칠레 FTA 투자협정 등 협상과 “아태무역협정” 제4차 협상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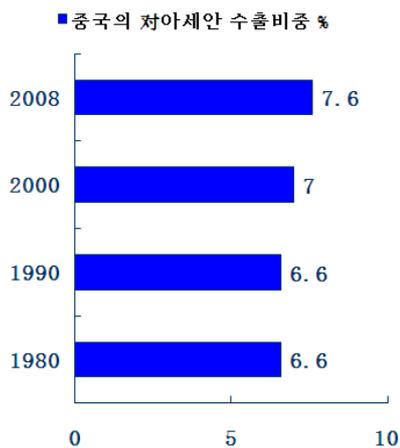
□ 중국과 FTA 상대국 간 무역액이 현저하게 증가함.

- 2010년 1-9월, 중국과 10개 FTA상대국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홍콩과 마카오, 대만지역)의 양자무역액은 5213억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24%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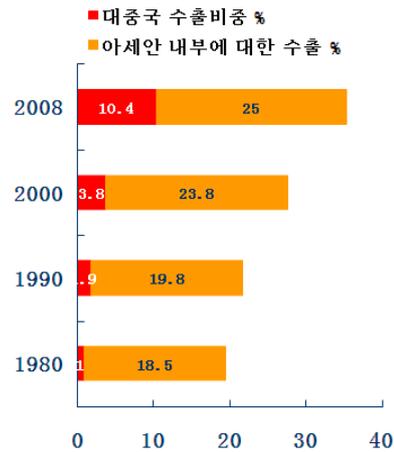
-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과의 협정을 제외할 경우, 중국과 7개 상대국의 양자무역액은 251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3.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평균 증가율인 37.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그 중 중국과 아세안, 칠레, 페루, 뉴질랜드의 무역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평균 증가율보다 각각 5.8%p, 12.3%p, 9%p, 3.7%p 높았음.
-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의존관계는 계속하여 심화되고 있음.

<그림4> 중국의 대ASEAN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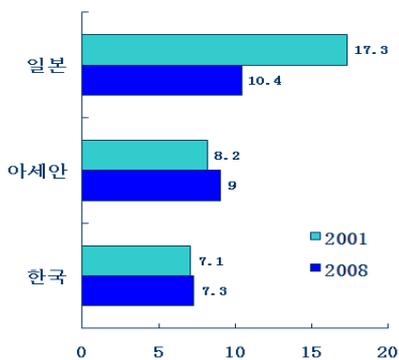
<그림5> ASEAN의 대중국 수출



□ 중국-아세안 FTA 발효

- 중국-아세안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FTA로, 2010년 1월 1일 전면 발효

<그림6> 중국의 양자무역 비중(%)



<그림7> 중국과 주요국별 무역 증가율(%)



- CAFTA로 인해 중국-아세안 경제무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아세안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3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할 전망이다(그림 6, 7 참조).

3. 12차 5개년 기간 중국의 FTA전략

가.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 기본목표: 상호이익의 개방전략 실시와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 추진 전략

- 국제 경제 협력과 지역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발전을 촉진함.
- 무역 균형, 일반특혜, WIN-WIN의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를 반대
- 지역협력 발전을 유도 및 추진하고 FTA전략을 가속화 실시하며, 신흥시장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함.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하며, 서비스 산업 발전 추진을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으로 함.
- 서비스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무역수지의 기본적인 균형을 촉진함.

나. FTA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발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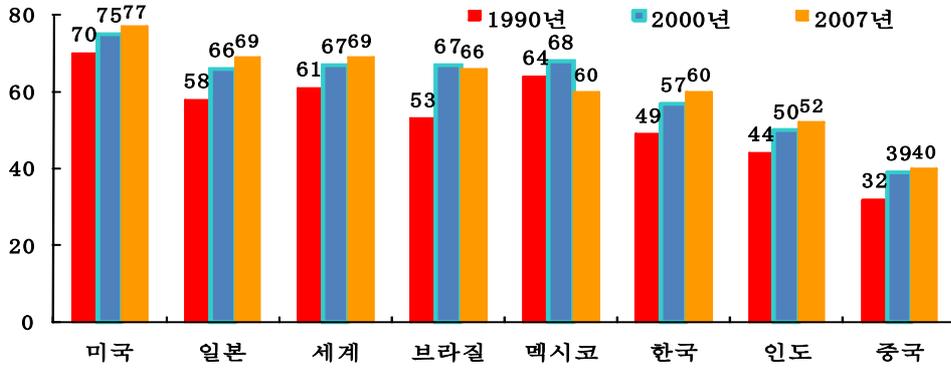
□ 현재 중국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세계 주요국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 수준에 부합하지 않음(그림8 참조).

□ 중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정도는 FTA 상대국보다 낮아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수준이 제고되어야 함(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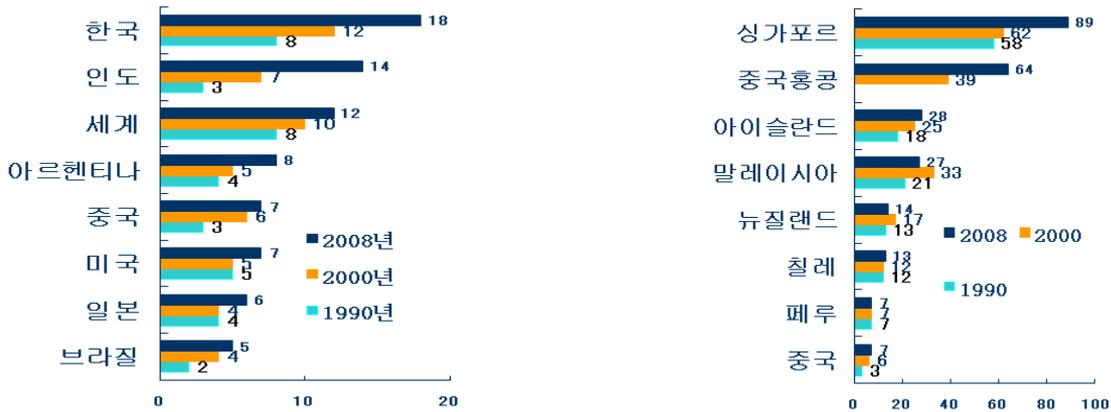
□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장기간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역시 더욱

제고되어야 함(그림10 참조).

<그림8> 주요 국가의 GDP 내 서비스산업 비중 (단위: %)



<그림9> 서비스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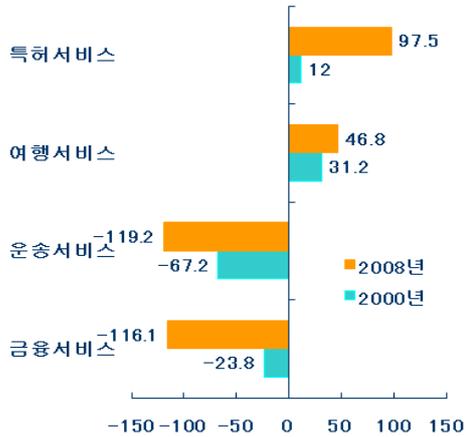


<그림10> 주요국별 서비스 무역 경쟁력 지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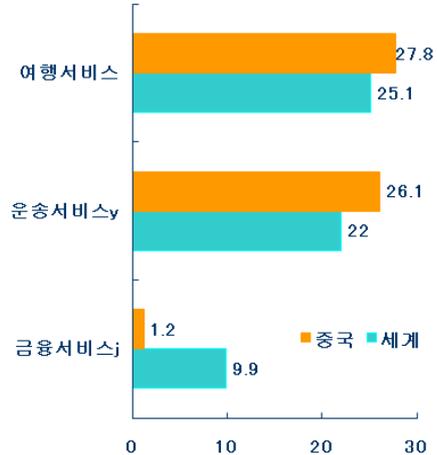


□ 중국의 여행업과 특허서비스산업은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금융서비스는 취약함.

<그림11> 중국의 서비스 분야별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그림12>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고용확대에 유리하며, 서비스산출과 수출증가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서비스 산업 비중 상승은 향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발전방식 전환에 매우 중요함.

다. 서비스 협정이 포함된 중국의 FTA

□ 중국이 체결한 서비스무역협정이 포함된 FTA는 다음과 같음.

- 대륙-홍콩 CEPA, 대륙-마카오 CEPA
- 중국-아세안 FTA
 - 2007년 “서비스무역 협정”을 체결, 2009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 중국은 WTO의 양허 토대 하에서 건축, 환경보호, 운송, 체육과 비즈니스 등 5개 서비스분야의 26개 부분에서 아세안국가에 대해 시장개방을 승낙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은 각각 금융, 전신, 교육, 여행, 건축, 의료 등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승낙하였음.
- 중국-파키스탄 FTA (2009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중국-칠레 FTA (2008년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무역 관련 보완협정” 체결)
- 중국-뉴질랜드 FTA (2008년 서비스무역이 포함된 FTA 체결)
- 중국-싱가포르 FTA (2008년 서비스무역이 포함된 FTA 체결)
- 중국-페루 FTA (2009년 서비스무역이 포함된 FTA 체결)
- 중국-코스타리카 FTA (2010년 서비스무역이 포함된 FTA 체결)

□ 대륙-홍콩 CEPA는 중국이 서비스무역을 개방한 FTA협정임.

- 2010년 5월 27일, 상무부와 홍콩정부가 체결한 “보완협정7”은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됨.
- 서비스무역에 있어, 대륙은 홍콩에 대해 14개 분야에서 27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그중 건축, 의료, 시청각(视听), 프랜차이즈, 은행, 증권, 사회서비스, 여행업, 문화오락, 항공운송, 전문기술자 자격시험과 자영업 등 12개 분야에 대한 원래의 승낙을 토대로 하여 시장진입조건 완화하고, 지분 규제 취소, 경영범위와 경영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음.
- 또한 기술 검사 분석과 상품검사, 전문 설계 2개 분야가 새로이 추가되었음.
- 지금까지 중국은 홍콩에 대해 44개 분야의 서비스무역을 개방하였고 277가지에 달하는 개방조치를 취하였음. 무역투자 원활화에 있어 교육, 문화, 환경보호,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였고 협력메커니즘과 협력내용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서비스무역 자유화는 서비스 산업의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FTA협정의 서비스무역 조항을 이용해 FTA 상대국가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여타 국가보다 더욱 많은 개방과 최혜국대우를 부여받음.
- FTA 협정의 서비스무역과 투자협정을 이용해 FTA 상대국이 중국 국내 서비스 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더욱 많은 개방 및 우대조건을 제공함.

- 인력, 자금거래,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도 상응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함.

□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

- FTA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와 서비스 업체 자격인증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함.
- 서비스 산업 시장개방과 국내산업 보호 사이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함.
- 국내 경쟁정책을 한층 개선하고, 시장 지향성 원칙을 견지해야 함.
- 정보 서비스와 인재 교육훈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투자와 무역활동의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야 함.

□ 한중 경제협력의 5대 중점분야

- 무역투자의 원활한 협력 강화, 상호 무역투자의 신속한 발전 촉진
- 중소기업 간의 협력 강화, 새로운 경쟁우위 육성
- 양국 간의 금융협력 강화: 양국기업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위해 더욱 완벽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 “아태무역협정”에서의 양국 역할을 강화하고, “한중 FTA” 등 제도적 협력과 지역경제 통합을 촉진
-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교류와 조율을 강화하고, 국제 지배구조 개혁과 개선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질의·응답>

질문 1.

한중 FTA 협상 추진에 있어서 농업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중국이 한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농업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가? 참고로 지금까지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이 농업분야에서 양보가 가능하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었음.

답변 1.

개인적으로는 모든 문제는 모두 협상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하지만 일부 조건을 협상을 시작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협상 시작이 어려울 것임. 우선 FTA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중에 양국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한중 양국 간의 농산물무역에 있어, 양국 간의 무역현황을 바탕으로 실시구시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음. 향후 중국은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할 것이며, 높은 수준은 ① FTA협정에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보다 많이 포함시키고 ② WTO 관련 규정을 만족시키는 등 두 가지 뜻을 내포함. WTO 규정에 따르면 FTA는 반드시 실제적인 무역자유화를 실현해야 하며, 95%~100% 사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됨. 만약 FTA협정에서 예외로 해야 할 부분이 10% 혹은 20% 이상일 경우, FTA가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FTA협정이 아님.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과일, 채소, 일부 식량, 식품 등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음. 따라서 만약 FTA협정에서 모든 농산품을 모두 예외로 할 경우, 양국 간의 FTA협정은 분명 WTO 규정에 어긋나게 될 것임. 하지만 협상을 통해 모든 농산품이 아니라 농산품 중의 일부 품목, 예컨대 쌀 등 품목을 예외로 허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함. 즉 모든 농산품을 제외시킬 수는 없지만 일부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 적당한 양보는 할 수 있음.

질문 2.

앞으로 중국은 WTO수준에 맞는 FTA를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대만과 체결한 ECPA는 WTO수준에 맞는다고 보는가? 농산물에 있어 대만에 많은 예외적 기준을 허가하였는데 한국은 대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현재 한중 FTA협상의 스케줄이 어떠한가?

답변 2.

ECPA는 중국 대륙과 대만지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타 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FTA와 비교할 때 특수성이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음. 만약 두 개 독립적인 관세지역이 자유무역협정

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WTO수준에 맞게 체결해야 함.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ECPA를 보면, 중국 대륙은 시장개방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였고 대만을 위해 농업이나 공업에서의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대만은 시장개방에 있어서 안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중국 대륙과 대만 간의 ECPA는 다소 일방적인 측면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기타 국가나 지역과의 FTA협정에 결코 적합하지 않음.

본인은 한중 FTA협상을 적극 추진하지는 입장이며, 향후 1-2년 내에 한중 FTA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만약 협상이 1-2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양국 FTA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음. 2011년 내로 협상이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현재 한중 양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FTA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과 수단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함.

질문 3.

한중 FTA 추진 방식에 있어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조기수확 부분에 포함시키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거쳐 협상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3.

이런 방식은 최근 중국이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였던 방식임. 이런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논쟁이 없는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양국 소비자와 기업이 FTA에 따른 혜택을 보다 더 빨리 향유하도록 하고 양국 FTA타결 확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없는 제품은 찾기 쉽고 아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예컨대 최근 한국의 배추가격이 급등하였을 때,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배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중국은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쉬운데서 점차 어려운 것으로 추진"하는 특징이 있음. 협상하기 쉬운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타결하고, 이후 점차 어려운 품목에 대해 타결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인은 질문자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선 조기수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후에 전면적인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개방을 구체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함.